하이퍼텍스트의 이론에 대한 고찰*

이상철**

1. 서론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전산학을 토대로 언어학과 심리학연구는 물론 하이퍼텍스트의 사회적 영향과 철학적 관점들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 논의가 활발하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문학 평론가 혹은 문화 연구가들에 의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이퍼텍스트의 분석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학 부문에선 정보 사회와 뉴미디어론의 일부분으로 하이퍼텍스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들 중 매체 결정론자들은 새로운 매체 기술의 영향에 대한 고찰이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첫째, 기존 매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하이퍼텍스트에 관한 언어 문화적 관점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하이퍼텍스트의 인문학적 비평의 주된 논의들을 검토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하며 문학 평론가들이 지적하는 하이퍼텍스트의 개방성(openness),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탈중심성(decentrality), 다성성(polyphony)과 하이퍼텍스트의 리좀적(rhizome)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하이퍼텍스트의 수사학 관점들을 고찰함으로서 하이퍼텍스트 담론 구조 분석의 관점들을 제시한다.

2. 매체 결정론과 하이퍼텍스트 언어

매체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문학, 언론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학에서의 논의는 포괄적으로 정보 사회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하며 문학과 언론학에선 텍스트와 이용자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단원에서는 하이퍼텍스트의 기술론적 관점에서 정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인문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체 기술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정보 사회론자들은 정보 기술을 자본재로 보며 생산과 노동관계를 규명하려는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기술로 인해 도래한 정보 사회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벨(Bell, 1980)은 정보 양식(the mode of information)-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양식-의 변화로 인해 인류가 탈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고 주창한다. 하이퍼링크의 기술 세계에선 지식이 중심이 되고 매체의 기술 보다 지식 또는 정보의 이용 형태가 문명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주창한다.

앨빈 토플러(Toffler, 1980)는 정보 혁명으로 인해 사회 권력의 이동을

예견하고 있으며 드러커(Drucker, 1992)는 기술 발달로 인한 지식 혁명을 사회 변동의 주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기타 정보 사회론자들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생산력과 생산 양식(the mode of production) 혹은 기술 양식(the mode of technology)들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지만 글쓰기(the mode of writing)와 인쇄 기술(the mode of printing)과 같은 문화 생산 양식이 인간 사고와 사회를 규정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직접 탐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체 기술 양식에 따른 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네그로폰테(Negroponte, 1995: 157-158)는 "하이퍼텍스트가 인쇄된 책의 페이지를 없애고 탈정보사회는 지리적 한계를 없앨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기술 정명론자들의 예견처럼 기존 종이 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정보 전달과 문학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가상공간으로 전환이 확산되고 있으며 하이퍼텍스트가 갖고 있는 고도의 상호 작용성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새롭게 이동하고 있다. 문자 언어 시대이어 새로운 전자 언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1) 매체 결정론

매체 기술 논의의 중점은 매체 기술 발전이 어떤 사회·문화적 변화의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매체 결정론이 있다. 매체 결정론적 논의는 기술과 사회 또는 뉴미디어 이용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이퍼미디어 기술의 발전 및 이용은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매체 결정론자들은 매체 기술 발전이 사회 변화 및 문화 변동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매체 결정론자인 이니스(Innis)와 맥루한(McLuhan)의 논의는 하이퍼텍스트 연구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니스와 맥루한의 주요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니스는 『제국과 커뮤니케이션』(*Empire and communication*; 1950)과 『미디어 편향』(*The bias of communciation*; 1951)이라는 저서를 통해 매체 기술의 변화가 인류 문명 변화를 초래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파악하였다. 인류 사회의 변화가 매체 발전 과정에서 각 매체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매체 기술의 변화로 인해 인간의 지식 습득과 소유 및 인식 능력이 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인간 행태나 사회 조직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매체를 통제하는 집단이 정치·사회적 권력을 소유하였다고 보며 매체와 권력 변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했다. 매체 기술이 사회내의 문화나 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의 조직 구조를 결정하고 계급관계를 설정하고 권력의 중심을 전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니스는 서구 문명사를 매체와 관련하여 아홉 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설형 문자 ② 이집트와 그리스-로마 시대의 파피루스, 모필, 상형문자 ③ 로마제국 시대의 양피지와 펜 ④ 양피지와 종이의 병용 ⑤ 르네상스 이전 종이와 인쇄술 ⑥ 금속활자 인쇄시대로부터 19세기 초 ⑦ 19세기 후반 대량 인쇄술 시대 ⑧ 영화 ⑨ 라디오로 구분하였다.

이니스는 매체를 공간적 특성이 강한 매체와 시간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구분한 후 이에 따른 각각의 제도적 특성을 제시하며 사회·문화 변동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흙, 돌, 양피지 같은 매체의 특성을 내구성이 강하나 공간 이동이 어렵다고 하여 시간 편향 미디어라 칭하였으며 반면 종이나 파피루스는 내구성이 약한 대신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공간 이동이 간편하여 공간 편향 미디어라 칭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문화권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시간적 편향 미디어는 관습, 권위, 공동체의 위계질서, 영속성 등이 강조되는 사회인 반면 공간적 편향 미디어 사회에선 정치권력의 제도의 확대, 제국의 확장을 가져왔다.

시간 편향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근접한 공동체들, 형이상학적인 사유, 그리고 전통적인 권위를 옹호해왔으며 종이와 같은 인쇄물은 공간 편향 미디어로 확장과 통제에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시간 편향 미디어는 구어적 전통이 강한 반면 문자 매체의 접근은 일부 소수 특권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공간 편향 미디어는 문어적 전통이 강하다.

<표 1> 이니스의 시간 · 공간 편향 매체 속성

시간 편향 매체	공간 편향 매체
· 양피지, 진흙, 돌	· 종이, 파피루스
· 내구성 강함 · 이동력 약함	· 내구성 약함 · 이동력 강함
· 영토 수축	· 영토 팽창
· 구어 문화 중심	· 문자 문화 중심
· 이데올로기 및 신념 지배	· 의사소통 확대로 여론 형성
· 윤리와 형이상학의 발전	· 과학기술의 발전 촉진

이니스는 특정 사회에서 권력의 독점유지와 세습적이고 위계질서를 강화하는데 매체가 의도적으로 이용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이니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 중 주목할 점은 전파매체인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단지 오락과 정보 제공에 있지 않고 의사소통의 속도와 거리를 단축하며 중앙 집권화와 제국주의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니스의 이런 관점은 맥루한의 관점에 영향을 끼치며 맥루한은 이니스의 관점을 토대로 매체의 특성에 따른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맥루한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며 재발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 필사본의 내용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

게 재생산하는 텍스트는 동질성과 반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보며 이를 '구텐베르그 인간형'이라고 칭했다(McLuhan, 1962). 그는 매체의 발달은 인간 오감을 연장하려는 욕망의 결과로 보고 매체 발달을 오감의 확장으로 보았다. 맥루한은 매체 발전을 네가지 시대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잇다. 첫째는 구두 의사소통에 의존했던 원시 부족시대이다. 이 시대의 인간은 구술적이며 음향적 공간에 살았기 때문에 복수 감각형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자 발명이후의 초기 문자 시대로서 이 시기에는 차츰 시각형의 인간이 형성되긴 했지만 문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로서 일반적으로 구술 시대였다. 세 번째 단계는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 발명 후인 활자 시대이다. 네 번째 단계는 현대의 전자매체 시대로서 사람들은 다시 복수 감각형이 되어 첫 번째 단계, 즉 원시 부족 시대로 회귀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을 맥루한은 '재부족화'(retribalization)라고 부르며 구어사회의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부족화란 개념 중심에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1960년대에 그는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사라져가고 실시간으로 동시성이 보장되는 전자적인 지구촌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맥루한의 예측은 하이퍼텍스트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다가왔다. 하이퍼텍스트가 갖고 있는 링크는 무경계성(borderlessness)에 근거하여 공간 개념을 축소하였고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정보의 저장과 이용은 물론 즉각적인 편집은 시간의 개념마저 새롭게 하며 그가 예측했던 지구촌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맥루한의 논의중 하이퍼텍스트에 연구에 유용한 개념은 매체 이용자의 낮은 상호작용 수준 즉 참여 수준을 요구하는 핫미디어(hot media)와 반대로 높은 상호 작용과 참여 수준을 요구하는 쿨미디어(cool media)의 개념이 있다(McLuhan, 1965).

<표 2> 맥루한의 핫미디어와 쿨 미디어의 속성

핫미디어	쿨미디어
· 라디오 · 인쇄 매체 · 관여도 낮음 · 해상도 높음 · 구체적 · 논리적 정보	· 텔레비전 · 관여도 높음 · 해상도 낮음 · 구어적 · 직관적 · 감성적 정보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은 매체에 높은 관여를 하고 있고 책을 보는 독자들은 낮은 관여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분법적인 구분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맥루한의 양분법적 분류는 하이퍼텍스트의 속성과 이용자 연구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이퍼텍스트 이용자는 단순히 독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위하여 링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맥루한은 전자 시대가 도래하면 활자시대에 와해되었던 구술문화 시대의 다양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볼츠(Bolz, 1993; 윤종석 역, 2000)는 하이퍼미디어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맥루한이 말한 구텐베르크-은하계의 이별을 고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니스와 맥루한의 관점은 기술이라는 변인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지만 그들의 논의는 매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과 하이퍼텍스트 연구에 응용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연구에서 현재까지는 기술 결정론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매체 기술론적 관점에서만 보거나 혹은 그 반대 입장에서만 고려하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에 따른 사회 · 문화 변동의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 하이퍼텍스트가 가져온 전자시대가 새로운 다양성의 길을 열고 있다는 주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체 기술 발전이 언어생활에 끼친 영향일 것이다.

2) 구술성, 문자 시대, 하이퍼텍스트의 전자 언어 구술성에서 전자 언어로

인류는 로고스적인 동물이다(homo logos).[1] 인간의 구술성은 다른 물리적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기억과 성대만을 이용하여 의사를 소통하였다. 구술 문화에 있어선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순간적 혹은 상황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로 의미를 전달함에 따라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았다. 화자와 텍스트, 청자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존재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 청자와 화자간의 서로 비언어적인 감정을 교감하며 텍스트를 통해 화자와 청자는 서로 긴밀한 연계를 맺는다. 그러나 구술 문화의 텍스트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멀리 전달할 수 없다.

구술 문화에 이어 기원전 3-4천년 전 인간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종이의 등장과 함께 인쇄 기술의 발달은 텍스트의 속성을 청각에서 시각으로 전환시켰다. 텍스트는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텍스트를 접점으로 매개되던 화자와 청자는 더 이상 시간적으로 현존할 필요가 없다. 문자와 종이의 확산은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텍스트로 연결하고 문자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스스로 확립하게 되었다. 옹(Ong, 1982)은 문자 시대의 텍스트는 선형적(linear)으로 변했으며 담론의 구성도 선형적 논리에 따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쇄 기술의 발달은 동일한 텍스트를 여러 장으로 복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복사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Eisenstein, 1980). 사용할수록 파손되는 필사본의 형태로 정보를 보

---

1) homo sapiens와 homo erectus처럼 homo logos 이다. 그리스어 logos는 이성 혹은 말이라는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언어가 갖는 이성을 말한다. 이성을 영어로 번역하면 reason, rationality, logos로 번역된다. 서로 연관은 있지만 각기 상이한 이성이다.

관하는 작업을 벗어나 인쇄 복사본을 통해 다량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유나 사고들이 종이 위에 표현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원형성과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낳게 된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후 여러 세기에 걸쳐 사본 필경자, 출판업자, 저자들은 정보 처리 및 검색이라는 다양한 수단과 도구를 발전시켰다. 책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쪽 매김과 색인 등을 고안해내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학문적으로 유용했지만 정보 검색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

전자 매체의 발전은 잉크와 종이 대신 비트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전자 텍스트라는 새로운 텍스트를 출현시켰다. 보들리야르가 지적하듯이 '촉각적인 것(tactile)으로부터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루었다(Baudrillard, 1983; 115). 디지털의 전환은 정보의 축, 저장,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고 지식을 시각적으로 재현했던 한계를 벗어나 청각적인 정보도 동시에 담게 되었다. 종이 책으로 저장, 보급되던 문자 언어는 디지털 컴퓨터에 의해 창조되는 전자 언어로 인하여 그 권위가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 언어는 문자 언어의 구술성과 문자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강내희(2000)는 포스터(Poster, 1996)를 인용하며 전자 언어를 '시청각 언어 혹은 영상 언어'로 특정지우며 문자 언어가 막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행태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적 시청각 언어는 문자 언어와 유사하다. 그러나 영상 언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시청각 언어로 기능한다고 본다. 그리고 영상 언어의 시각 언어 부분도 더 이상 문자로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첨가되고 이미지는 청각 및 동화상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언어로 군림한다고 지적한다. 말은 실제 행위가 일어난 시간과 공간에 의해, 글은 책과 종이 면의 시간적 선택과 공간에 의해 각기 틀 지워지며, 이들 모두 재현의 논리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반면에 전자 언어는 이전의 모든 언어 형태들을 재고하게 하며 사회와 언어에 대한 개방적 이해를 강조한다. 따라

서 전자언어는 재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실재이면서 재현인 것이다. 어디에나 있는 동시에 아무데도 없으며, 언제나 있는 동시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면서 비물질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전자텍스트는 최근 하이퍼텍스트로 발전하여 문자 시대에 어려웠던 텍스트 구성자와 이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하이퍼텍스트의 처리는 컴퓨터로 제작된 코드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스크린에서 보는 텍스트는 가상텍스트이기도 하다. 하이퍼텍스트의 원본은 컴퓨터 안에 있지만 구성자가 제작한 원래의 형태가 아니고 비트의 형태로 존재한다.

하이퍼텍스트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텍스트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공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로부터 재생하는 장치나 스크린의 형태에 따라 이용자 개개인이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자체는 영속적인 것도 아니며 흐름(flow)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볼터는 "하이퍼텍스트는 의미의 요소, 구조의 요소, 시각적 배치의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텍스트이다. 인쇄술이나 중세의 사본과는 달리 쓰기의 어떤 측면이 미리 결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불안정성은 실리콘과 금속의 미세한 접합부에 일시적으로 전자의 파편들을 모음으로서 정보를 기록하는 이 기술의 속성에 내재된 것이다. 컴퓨터의 세계에서 글쓰기란 일조의 통제된 흐름이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Bolter, 1990: 31)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퍼텍스트는 문자 시대의 원형성과 저작권의 개념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였다. 하이퍼텍스트는 인간의 연상적 사고를 집약하여 조합(combination)과 분류(classification)를 구현하는 텍스트 양식을 취하며 문자 시대의 특성인 선형적 텍스트를 벗어나 비선형성의 특징을 띠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기존 문자언어와 달리 비선형성(nonlinearity),

다연결성(seamlessness), 무경계성(borderlessness)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2)]

3) 하이퍼텍스트 시대 언어 문화적 함의

제임슨(Jameson, 1981)은 『정치적 무의식』에서 맥루한을 공격하면서 기술과 마르크스주의를 분리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제임슨과 같은 비판 이론가들은 매체 기술 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술이 문화의 어떤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울머(Ulmer, 1989)는 매체기술은 철학적·정치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하며 결국 의사소통 형태와 양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랜도우(Landow, 1991; 여국환 외 역, 2001)는 전통적으로 글쓰기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으며 인쇄 기술은 고도의 자본화를 이루며 생산 양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헤게모니의 한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하이퍼텍스트의 세계에선 권력을 가진 독자와 저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즉 그들이 읽은 텍스트들과 그 텍스트들의 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기존 인쇄 문화보다 독자들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권력을 가진 독자들이 형성되면 점차 민주화되고 탈중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연구가들은 하이퍼텍스트 기술이 권력을 분산하고 새로운 읽기와 글쓰기의 형태로 권력의 분산과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 연구가들은 하이퍼텍스트 읽기와 글쓰기 형태의 변화는 반위계적이며 민주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

2)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권순희(2002),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읽기 교육 개념의 재설정』(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2단계 사업 1차 콜로퀴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참조.

다(Yankelovich, 1991; Yankelovich, Meyrowitz, & Drucker, 1988). 저자들과 독자들은 그들이 문서 준비과정에서 다른 자료들을 검색하고 주석이나 참고 자료로 곧바로 갈 수 있으며 자신들의 논평들을 보내며 저자와 독자의 구분을 흐리게 한다.

맥루한(McLuhan, 1962)의 견해를 응용하면 하이퍼텍스트 기술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개인적 권력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참여의 조건들과 필요성을 재구성한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전자 미디어는 협동적이며 자발적 실천이 있을 때 권력화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연구가들은 하이퍼텍스트를 소유하는 사람,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는 사람, 하이퍼텍스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부여된다고 주창한다(Mayes, Kibby, & Anderson, 1990). 하이퍼텍스트에서 정치·문화적 함의를 주는 행위는 하이퍼텍스트의 이용가능성과 접속가능성의 권리이다. 이용가능성과 접속 가능성은 다시 접속하기(link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 그리고 네트워킹(netwroking)의 네 가지 면으로 압축하며 살펴보면 효율적이다(Meyrowitz, 1991). 하이퍼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의 접속을 만들어 내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으며 링크된 텍스트의 지적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는 문제가 대두됨으로서 권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접속 기술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역할과 권한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할 것이다. 하이퍼텍스트에선 주텍스트와 보조텍스트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보조 텍스트는 언제든지 다시 주텍스트가 될 수 있으므로 소유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유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어떤 블록들을 포함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어떤 연결을 배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데올로기와 직결한다.

만약 이용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어려워지면 기존의 인쇄 문화에서 능숙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또한 하이퍼텍스트 세계에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은 출판을 의미

한다. 네트워크에 접근 하이퍼텍스트의 읽기는 어떤 부분은 금지될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을 무상으로 인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권력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하이퍼텍스트에 의한 언어생활과 권력의 변화는 자명해진다. 장폴리(Zampoli, 1991)는 구텐베르그 혁명과 자신이 "언어의 정보화" (informaization: 장폴리의 용어)라고 한 개념을 통해 기존 언어가 하이퍼텍스트 언어로 변환되지 않을 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는 "인쇄에 관련되지 않았던 언어들은 방언이 되었거나 사라졌다. 언어가 정보화되지 않을 경우, 즉 특정 언어가 전자 텍스트(하이퍼텍스트)로 저장, 변환, 이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거나 방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폴리가 지적한대로 하이퍼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 언어가 새로운 정보 매체로 변환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주변화 되며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물론 하이퍼텍스트의 영향력에 대한 예측은 아직 미래학의 부분이다. 한동안 하이퍼텍스트와 인쇄 텍스트가 나란히 병존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의 영향력이 문화적으로 우세해지면 능동적이며 참여적인 독자들을 창출하며 새로운 언어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독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는 선을 넘어 주어진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텍스트를 생산하고 변형하고 창조해 나갈 것이다. 지식 생산자들도 자신들의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에 올려놓지 못하면 저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보일 것이다.

3. 텍스트로서 하이퍼텍스트

문학 평론가들이 하이퍼텍스트를 이론화하거나 하이퍼텍스트 분석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 있다. 문학 평론가들은 기존 텍스트 평론 방법을 응용하기도 하나 이중 후기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은 하이퍼텍스트의 텍스트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하이퍼텍스트의 특성과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표상 혹은 재현 체계의 유동성과 부정확성이며, 둘째, 전위적 실험성과 일탈성, 참여 행위의 중요성을 들고 있으며, 셋째, 파편화 현상 및 임의성과 유희성을 든다. 넷째, 위계적 질서의 재편성과 주변부의 권력화를 들고 있으며, 다섯째, 비종결성과 불확정성을 들고 있고, 여섯째, 장르의 융합과 확산을 지적하고 있다(김재국, 200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이퍼텍스트의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개방성(openness),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탈중심성(decentrality), 다성성(polyphony)과 리좀(rhizome)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하이퍼텍스트의 텍스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1) 하이퍼텍스트의 개방성, 상호텍스트성, 탈중심성, 그리고 다성성

(1) 개방성과 상호텍스트성(openness & intertextuality)

텍스트 이론과 개념들이 낯설지 않게 사용된 것은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가 등장한 후라 할 수 있다.[3]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스트 사상가들 중 서로 상이한 점은 텍스트를 표상체계(재현체계) 이해하는가 아니면 표상 체계를 넘어선 것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들의 '텍스트론'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주는 기준이 된다. 일부는 표상 체계내에서, 텍스트 의미작용을 일부는 표상 체계를 넘어선 텍스트의 개념에

3) 후기 구조주의 등장 이전 문학에선 텍스트라는 용어 대신 문학 작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서 의미작용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기 구조주의의 핵심은 의미의 불안정성과 기표들이 고정적으로 완결된 표상 체계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텍스트란 개념은 작가와 일대일로 대응하며 작품의 완결성을 의심하고, 표상체계에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인식론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바르트는 독자적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비선형성을 강조하였으며(Barthes, 1974) 반면 데리다(Derrida, 1976)는 텍스트의 개방성, 상호텍스트성 등을 강조하며 한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사이의 구분의 부적합성을 지적하였다. 데리다는 link, web, network, interwoven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텍스트성을 모색하고 가능성을 열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arri, 1987)는 인간은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전세계를 리좀식으로 방랑하며 어떤 이와도 링크될 수 있는 유목민적 존재(rhizomic nomads)라고 주장한다.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터(Bolter, 1990)는 하이퍼텍스트의 열린 텍스트 개념들을 구체화하였다. 푸코(Foucault, 1976)도 그의 저서 「지식의 고고학」에서 "한 책의 경계들은 그 책이 다른 책들, 텍스트들, 문장들에 대한 지시 체계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 책은 다른 책들, 텍스트들, 그리고 다른 문장들에 대한 참고의 체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책은 하나의 네트워크 속의…… 한 지시망의 결절점(node)이다."라고 주장한다.

데리다는 텍스트를 이산된 독서 단위(discrete reading unit)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조종(Gras]에서 텍스트의 bit, piece, 소량(morsel), 파편 혹은 분권(fragment)를 강조하며 해체의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산된 텍스트들의 단위들 간의 연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산된 텍스트들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아쌍블라주(assemblage)를 제시하고 있다. 아쌍블라주는 데리다의 추종자 울머(Ulmer, 1989)에 의해 재해석되며 하이퍼텍스트 연구에 응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울머는 데리다의 아쌍블라주를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결

합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 마치 실 혹은 신경 감각선과 같이 망처럼 갈라져 존재하지만 항상 짜기(web) 혹은 섞어짜기(weaving)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텍스트의 개방성(openness)과 다연결성(seamlessness)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개방은 무한정 개방되어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텍스트가 개방되어 있으나 항상 다른 텍스트와 연결된 단위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데리다의 이런 선견은 하이퍼텍스트의 글쓰기에 있어 직관적인 이론을 제시하게 되며 이를 하이퍼텍스트 연구가 랜도우(Landow, 1997) 메타텍스트(metatext)라 부르며 넬슨은 문서시(docuverse)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하이퍼텍스트는 근본적으로 종이 책들이 짤 수 없는 텍스트들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상호텍스트이다. 이런 하이퍼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성은 평론가들의 작가-독자-텍스트의 삼항 관계에서 텍스트/담론/문화로 구성된 삼항 관계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변화는 문학 텍스트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역사적의 전통적 평론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렇다고 물론 기존의 평론 방법론을 평가 절하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평론의 새로운 개방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첨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하이퍼텍스트가 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혹은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평론가들의 어떤 주장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들을 시험할 수 있는 풍부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 <u>탈중심화와 다성성(decentring and polyphony)</u>

하이퍼텍스트들의 독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관심에 따라 움직이며 기존의 작가 중심의 구성 원칙을 변형하고 그들 자신의 구성 원칙을 재창조한다. 하이퍼텍스트에선 독자나 이용자가 중심을 재설정하거나 중

심을 이탈하기도 한다. 중심의 관점은 독자에게 달려있다. 종이 위에 쓰인 인쇄물의 페이지를 읽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그 페이지 혹은 구문으로부터 텍스트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시작한 텍스트의 부분은 하나의 중심성이 된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에선 중심성에 대한 이러한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에선 무한하게 탈중심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중심화할 수 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에서 개별적인 어휘소는 다른 텍스트망으로 통하게 되며 개별적인 텍스트들이 서로 연결된 몸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이퍼텍스트에 중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혹은 중심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진 않는다. 하이퍼텍스트에서 중심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에선 주석, 비평, 혹은 부가된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텍스트는 중심에 벗어나 있으나 중심에 도전하며 때론 상응한다. 하이퍼텍스트에선 여백이 중심을 제공하며 여백에서 중심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이퍼텍스트에서 중심성은 독자의 마음속에 거주한다. 중심성에 대한 하이퍼텍스트의 해체적 관점은 텍스트, 정보, 그리고 통제에 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 모델을 새로운 모델의 등장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권력을 저자에게서 독자에게로 분산하도록 전환을 지향한다.

하이퍼텍스트에선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단일의 주장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는 바흐친이 대화적(dialogic), 다성적(polyphonic, multivocal)인 면을 강조한 점에서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을 예견한 것이다. 바흐친에 따르면 소설 그 자체에서 비참여적인 제3인물들은 그 어떤 식으로든 재현되지 않는다. 작품의 광범위한 관점에서도 그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바흐친의 제3의 목소리는 하이퍼텍스트의 중요한 특성을 지적해 준다. 하이퍼텍스트에선 언제나 일시적인 관점, 현재 읽고 있는 렉시아(lexia), 그리고 그 렉시아를 선택하는 경험으로부터 관점이나 목소리가 형성되며 기표는 유

동적이다.

2) 하이퍼텍스트의 리좀적 특성

하이퍼텍스트의 텍스트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는 용어는 리좀이다.[4] 랜도우(2001)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리좀에 부여한 특성들이 하이퍼텍스트의 특성과 완전히 부합하진 않더라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각각의 고원은 어디에서 시작하건 읽을 수 있으며 다른 고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리좀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입구와 출구를 지니며 위계질서보다 무질서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하며 어떤 지점에서든 다른 지점으로 연결해 주며 때론 완전히 다른 정보로 결합시켜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리좀과 하이퍼텍스트는 접속(connection)과 이질성(heterogeneity)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http만 통하면 지리적, 인종적,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접속 가능하다. 하이퍼텍스트는 리좀적 확장 능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접속을 통해 동질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관심에 따라 다른 링크를 따라가는 이질적 존재들이다. 또한 복수성(multiplicity)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리좀의 복수성은 신경 섬유의 복수성이며 하이퍼텍스트의 복수성은 네트워크의 복수성이다. 네트워크들이 확대되면서 수많은 접속점을 이루면서 분산과 개방형 체계를 갖고 있다. 네트의 복수성엔 주인이나 관리자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단수 접속들이 모여서 집합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리좀의 특성과 하이퍼텍스트의

---

4) 리좀(잔디 줄기)은 하나의 뿌리로 귀착하는 일반 나무와는 여러 줄기들이 중심 없이 엉켜 있으면서도 분기하고 접속되는 형상을 말한다. 제멋대로 뻗치고 이동해가는 망상 조직이다.

유사점은 비기표적 단절(asignified rupture)의 원리이다. 어떤 지점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다른 선들을 따라 재생할 수 있다. 단절의 발생과 더불어 또 다른 재생 과정에서 원 작자의 기표 체계의 조종을 다르지 않는 다는 점에서 비기표적이다. 하이퍼텍스트적으로 표현하자면 라우팅(routing)이다. 단절되면 최단 거리를 찾아 재생의 방법을 발견한다. 단절과 균열의 간극을 이어주는 링크들 만큼이나 단절과 균열이 비선형성인 하이퍼텍스트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지도 제작술(cartography)과 전사술(轉寫術, decalcomany)의 원리이다. 리좀 속에서 말벌과 난초들이 만드는 지도를 형성할 뿐이며 지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수행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것이다. 지도는 다수의 입구를 갖는다. 지도는 열려있으며, 모든 차원들과 접속될 수 있으며, 분해할 수 있고,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는 변용의 수용에 민감하다. 하이퍼텍스트는 컴퓨터들 사이에 수많은 링크와 라우터들로 연결되어 있고, 이용자는 페이지를 이동하고 넘나들면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장소를 초월한 접속 능력의 유연성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하이퍼텍스트 속에서 독자들의 경로나 선택의 수행과 상호작용이 지도를 형성하기도 하며 변형하기도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현대 독자들의 기억을 단기간 기억 혹은 반기억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특성은 하이퍼텍스트에서 독자들이 텍스트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잠정적 특성에 비유되고 있다.

랜도우는 하이퍼텍스트의 글쓰기를 사회적 리좀의 형태로 보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오직 그것이 자라나는 중간(환경)"에 의한 리좀의 특성은 랜도우에 의해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이때 리좀이란 개념은 하나의 대안 패러다임이지 하이퍼텍스트를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4. 하이퍼텍스트와 수사학(rhetoric)

전자적 공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새로운 하이퍼텍스트에서 전통적 수사 기법을 응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이래 고전 수사학에서 말하기와 글쓰기의 방법은 창안(inventio; invention), 배열(dispositio; orgnization), 스타일(elocutio; elocutio), 기억(memoria; memory), 전달(pronuntiatio; delivery)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이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논의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요 논제로 지속되었던 것은 물론 국어 교육의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창안(invention)은 주제에 관한 논거를 발견하거나 논제를 창안하는 것으로 그리스인들은 topos라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이는 topoi로 발전하게 된다.[5] 둘째, 배열은 담론의 조직적 구성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도입, 명제의 진술, 분할, 증명의 반박, 결론의 큰 순서로 이루어지며 각 부분은 다시 소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스타일(style)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며 로마에 와서 스타일의 기법이 체계화되었다. 스타일은 크게 문채(figure)와 전의(trope)로 나누어진다.[6] 기억(momoria)

---

5) 그리스말로 topos는 place라는 뜻으로 아이디어들의 모임 "장소"로 표현되었다. 그리인들은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우리 뇌속의 한 장소에 위치하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뭉쳐져서 한 기억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어떤 특정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기억의 장소를 찾아내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개념은 topica라는 철학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topoi는 일반 토포이와 특수 토포이로 나누어지며 일반 토포이는 육하원칙, 혹은 존재성, 정도성, 공간성, 시간성, 행위성, 행태성, 본질성, 변위력, 위력, 필요성, 문제점, 심각성, 해결성, 실현가능성 등이 있다. 또한 인과 관계, 상관관계, 종속 관계, 비교 관계등을 나타내는 관련성 토포이도 일반 토포이에 속한다. 특수 토포이엔 각 주제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들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6) Figure와 trope는 같은 것이냐 아니면 서로 상이한 것이냐 혹은 figure가 trope를 포함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 스타일과 인간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인 인문학의 논제이다.

은 담론 내용의 암기를 의미하며 기억은 창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7] 전자 시대엔 기억의 저장, 검색, 이용을 자유롭게 하며 기억을 연장한 기술이라고 주요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쿠키 기능은 대표적으로 기억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dau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때 일단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환영 문구가 떠오르며 사용자 개인의 과거 행위를 저장하고 있다. 전달(pronutiatio)은 실행으로 목소리, 팔 동작, 몸 동작소리의 파장 등에 관한 범주이다.

정지영(1998)은 위의 기존 수사학의 개념과 범주를 적용하여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아래의 표와 같은 하이퍼텍스트 수사학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하이퍼텍스트 수사학의 다섯 가지

레토릭 범주	텍스트 구성자	텍스트 이용자
창안(inventio)	- 정보의 선택 - 정보의 생산	- 노드의 선택**(탐색)** - 노드의 조작
배열(dispositio)	- 노드 구분 - 노드간 링크 설정 **(- 방향 안내)**	- 제시된 링크 선택 - **방향 선택** - **궤도 유지**

7) 그리스인들은 기억(memoria)을 신의 개념으로 승화시켰다. 구술성이 지배하던 시기인 신화의 시대엔 기억은 중요한 자산이었다. 이를 그리스인들은 신격화하여 신화의 므네모쉬네(Mnemosyne)로 표현하고 있다. 므네모쉬네는 제우스의 누이라고 하며 이후 제우스와 므네모쉬네와의 사이에 아홉명의 무즈(muse) 혹은 무사이(musai) 딸을 낳는다. 이 딸들은 노래를 주재하고 기억을 촉진시켰다. 각기 문학·예술·과학 등의 부문을 분담하여 주재했다. 칼리오페는 서사시를 주재했고, 클레이오는 역사를, 에우테르페는 서정시를, 멜포메네는 비극을, 테럽시코레는 합창단의 춤과 노래를, 에라토는 연애시를, 폴뤼힘니아는 찬가(讚歌)를, 우라니아는 천문학을, 탈레이아는 희극을 각기 주재했다. 이후 므네모닉(mnemonic)이라는 접두사는 컴퓨터의 기억 장치로 지금도 컴퓨터 공학의 주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타일(elocutio)	- 문채의 선택 - *레이 아웃 · 디자인* - **활자 선택**	- **선호하는 문체** - **선호하는 활자**
기억(memoria)	- 컴퓨터 메모리	- 컴퓨터 메모리 - **위치 확인** - **북마크**
전달(delivery)	- *로딩 시간 결정* - **레이 아웃** - **디자인**	- **텍스트 감상** - *노드를 읽는 방식의 선택*

※ 정지영 수정 제안

위 표에 의하면 하이퍼텍스트 구성자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결정한다. 구성자가 다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변형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이용자는 여러 노드 중 어떤 노드를 읽을 것인가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이용자가 노드의 내용을 수정 및 변형할 수도 있으며 없는 내용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배열은 구성과 구조의 문제로 하이퍼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이퍼텍스트 구성자는 텍스트의 방향을 결정해 주어야 하며 그 방향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가를 잘 안내해야 한다. 스타일은 하이퍼텍스트 구성자에게 비중이 주어진다. 문채의 선택에 따라 저자의 독창성과 특이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활자의 선택에 따라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한다.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가 존재하는 방식과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읽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용례를 스타일에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그럼에도', '반면'과 같은 단어나 구들은 독자들에게 비유와 대조를 암시하는 것이며 '왜냐하면'이나 '이후에' 같은 접속사나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하이퍼텍스트 구성 장치 혹은 링크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장르마다 기존 장르와 다른 문체가 등장하며 사용되는

어휘가 변형되어 등장할 수 있다. 특히 접속사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이미 우리의 현재 언어생활에서 구어체의 문어체의 차이에서 많이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억은 독자가 출발지로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독자가 어디에 가보았으며 무엇을 보았는가를 알려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전달은 레이아웃과 디자인에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도 간단히 알 수 있다. 어떤 디자인을 하며 사진이나 이미지는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주요 용어들의 활자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른 사안이다.

하이퍼 텍스트의 구성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득의 수사학에 대한 관점도 연구되고 있다. 랜도우(Landow, 1997)는 하이퍼텍스트의 구성에 있어 네 가지 관점의 수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방향(orientation) 정보와 관련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독자가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독자가 현재의 위치와 다른 관련 자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려사항은 항해(탐색: navigation)로 독자가 스스로 텍스트내에서 자신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용자의 퇴장(exit) 혹은 출발(departure) 정보이며 네 번째는 도착(arrival) 혹은 입장(entrance) 정보이다.

하이퍼텍스트 구성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규칙 1. 하이퍼텍스트 링크의 존재 자체는 두 텍스트간에 목적이 분명하고 중요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규칙 2. 링크는 독자 관련 사고를 자극하고 고취하도록 주어져야 한다.

규칙 3. 독자들은 하이퍼텍스트의 링크로 연결된 텍스트간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서는 그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관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

로 여겨지게 된다.

규칙 4. 하이퍼텍스트들의 저자는 독자들이 생각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규칙 5. 항해(navigation) 자체를 즐길 만한 것으로 만드는 통일적인 스타일과 장치가 필요하다.

규칙 6. 독자가 현재 읽는 문서의 전체에서의 맥락을 알 수 있는 지도, 처음으로 복귀 장치. 현재내용의 목차와 포인터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규칙 7. 링크 표시를 관련되는 내용과 이미지로부터 독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하이퍼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학 논의는 구조의 문제는 물론 연결과 구성의 수사학에 관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서사 구조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머터프(Moulthrop, 1991)는 하이퍼텍스트의 서사구조는 의도(intention), 집중(concentration), 구조(structure), 반응(reaction), 보조(reference)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연구는 물론 앞으로 장르별 문체 혹은 서술 구조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이퍼텍스트에서 글쓰기는 링크에 의해 주로 규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수사학의 문체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5. 결론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매체 발전론적 관점과 텍스트 비평 관점과 수사학의 관점을 고찰해보았다. 매체 발전론적 관점은 앞으로 수행할 하이퍼텍스트 연구의 정치·사회·문화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이론을 제공할 것이며 텍스트 비평 관점은 이해 연구나 표현 연구의 개념을 제공할 것이

다. 나아가 수사학 이론적 관점은 텍스트 분석으로 확산하여 하이퍼텍스트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하이퍼텍스트의 인지 심리학적 관점과 교육학적 관점이다. 이후 연구는 위에 지적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있을 이해 연구와 표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내희(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학과학사.
김성기 역(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김재국(2001), 『사이버리즘과 사이버 소설』, 국학자료원.
박정규 역(1994), 『미디어의 이해』, 삼성출판사.
백욱인 역(1996), 『디지털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재규 역(1993), 『자본주의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윤종석 역(2000), [Bolz, Norbert], 『구텐베르크-은하계 끝에서』, 문학과지성사.
여국현 외 역(2001), 『하이퍼텍스트 2.0』, 문화과학사.
서규환 역(1992),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디자인하우스.
정지영(1998),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레토릭적 패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실(2000),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 생각의나무.
Barthes, R.(1974), *S/Z*, New York, Hill and Wang.
Baudrillard, J.(1983) *Simulations*, New York, Semiotext Press.
Bell, D.(1980), *The coming of post-industrai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Bolter, J. D.(1990), *Writing space: The computer in the history of literac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Press.
Bolz, N. W.(1993), An Ende der Gutenberg Galaxis; die neuen kommunikation sverhältniss, Münhen, Fink Verlag.
Deleuze, G. & Guattari, F.(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errida, J.(1976), *Of grammatolog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Drucker, P. F.(1992),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Eisenstein, E. L.(1980),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change; communictions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in early-modern Europ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nis, H.(1950), *Empire and commun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Innis, H.(1951),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Jameson, F.(1981), Political Unconsciousness: narrative an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Landow, G.(1990), "The rhetoric of hypermedia: Some rules for authors," In Delany, P. and Landow, George P. (Eds.), *Hypermedia and literary studies,* MIT Press, MA.

Landow, G.(1997), *Hypertext 2.0: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ayes, T, Kibby, M. & Anderson, T.(1990), *Learning about learning for hypertext,* In Jonassen, D. H. & Mandl, H. (Eds.), Desinging hypertext/ hypermedia for learing, Heidelberg: Springer-Verlag, pp.227-250.

McLuhan, M.(1962),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London; Routledge.

McLuhan, M.(1965), *Uni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McGraw Hill Book Co, New York.

Meyrowitz, N.(1991), Hypertext-Does it reduce Cholestrol, too? In Nyce, J. M. & Kahn, P. D. (eds.), Vannear Bush and the mind's machine: From Menex to hypertext, San Diego; Academic Press.

Moulthrop, S.(1991), *Beyond the electronic book: A critique of hypertext rhetoric, hypertext '91.* New York: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Negroponte, N.(1995), *Being digital*, Alfred Knopf, New York.

Ong, W.(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fo the word*, London, Methuen.

Poster, M.(1990),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polity press.

Toffler, A.(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Ulmer, G.(1989), Teletheory: Gramatology in the age of video, London; Routledge.

Yankelovich, N., Meyrowitz, N., & Drucker, S.(1988), *Intermedia: The Concept and the Construction of a seamless information environment*, IEEE Computer, v. 21, pp.81-96.

Yankelovich, N.(1991), From electronic books to electronic libraries: revisiting reading and writing the electronic book, *Hypermedia and literary studies*, Delany, P. & Landow, G. P. (Eds.) Cambridge; MA, MIT Press.

Zampoli. A.(1991), *Technology and linguistic research*, In Katzen, M. (Ed.), Scholarship and technology in humanities, (pp.21-51), London; British Library Research.

■ Abstract

Rhetorical and post-modern perspectives on analyzing hypertext

Lee, Sang-ch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hypertext. In extending Innis and McLuhan's perspective on media, it discusses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hypertext; nonlinearity, seamlessness, borderlessness. It argues that hypertext creates the changes in traditional power relations between writer and reader, and maker and audience. It also suggests that hypertext exemplify forms of transition between textuality and hypertextuality. Hypertext system links passages of verbal text and images as easily as they links more verbal passages. Hypertext linking situates the present text as the center of the textual universe, thus creating a new links of hierarchy in which power of the center dominates that of the infinite periphery.

Deleuze and Guattari's perspective on text--rhizome as a model of discourse--and Derrid's intertexuality is discuss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pertext. This paper proposes that rhizome is a useful model for analyzing structure of the hypertext. It identifies similarities that rhizome's multiple entries and exits is close to the multiple entries and links of the hypertext on World Wide Web.

Finally, it proposes that hypertext can be analyzed by traditional five cannons of speech, that is, invention, organization, style, memory, and delivery. Hypertext

requires a new method of writing and reading in invention, organization, style, and delivery. In organizing text, it ought to concern 'orientation'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for finding one's place within a text, it concern 'navigation' information, necessary for making one's way through the materials. and it also concern 'departure' and 'arrival' information.

[Key word] Hypertext, textuality, media determinism, rhizome, five canons of speech